

치매 환자, 가족,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행복한 보성군

지역사회와 협업 통한 치매 친화 환경 조성

보성군은 최근 치매안심센터가 치매 환자, 가족,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치매 안심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치매 관리 사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보성군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및 고위험 노인을 조기 발견하고 체계적인 치료·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치매 조기 검진 전문인력 투입을 강화하고 치매 환자 쉼터 이용을 확대해 수요자 관점 치매 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특히, 쉼터 참여자와 진단검사 대상자의 지리적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송영 서비스 제공, ▲찾아가는 선별검사 및 사업을 운영한다.

또한, 지역사회와 협업을 통한 치매 친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치매 인식 개선 홍보 활동 강화, ▲치매안심센터 전담 인력 배치, ▲읍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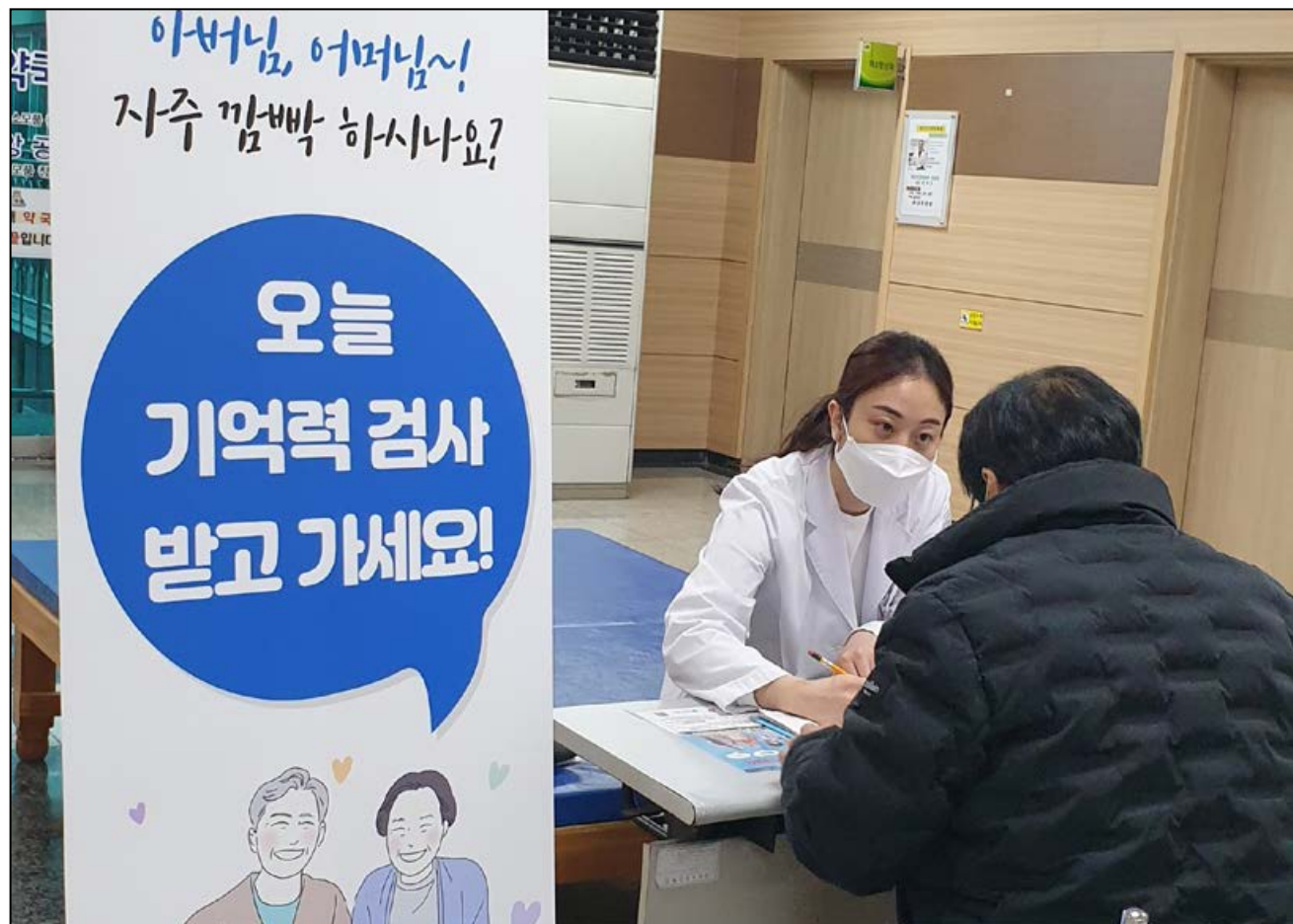
행정복지센터(면사무소) 사례관리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사례관리서비스 등을 실시한다.

치매 환자의 타지역 거주 자녀의 부담감을 덜어주기 위해 치매 고위험군 대상으로 선별검사, 진단검사, 감별검사 등으로 이루어진 치매 조기 검진을 논스톱으로 제공한다.

치매 검사가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검사 절차를 마련하고 관내 경찰서, 소방서, 학교와 연계한 치매 노인 실종 예방 모의 훈련도 실시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성군 치매안심센터로 문의(061-853-9997)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치매 환자, 가족, 주민들이 치매가 있어도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촘촘한 치매 친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중수 기자



보성군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및 고위험 노인을 조기 발견하고 체계적인 치료·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치매 조기 검진 전문인력 투입을 강화하고 치매 환자 쉼터 이용을 확대해 수요자 관점 치매 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보성군 제공

장흥군, 농업인재 육성 시동

장흥군이 전문 농업인 육성을 위한 '2024년도 장흥군농업인대학·농업아카데미'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최근 농업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린 입학식에는 신입생과 관계자 등 110여명이 참석했다.

올해 장흥군은 농업인대학 친환경농업 과정과 농업아카데미 청년 CEO·블루베리전문가 과정 등 3개 과정을 운영한다.

지난 3월부터 11월 총44회 184시간까지 운영되며, 과정별로 최고의 전문가를 구성해 9개월간 이론과 실습, 현장교육 등 체계적인 교육을 추진한다.

교육내용은 작목별 친환경 농업 기술 및 토양관리 및 친환경농자재 제조 활용법 등 친환경농업 실천 전문교육이 이뤄진다.

청년 농업경영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경영마인드 및 경영실무, 농장브랜드화에 따른 마케팅 콘텐츠 제작 등 청년농업인 경영역량 강화교육, 고품질 블루베리 상품화 및 가공·마케팅교육 등 지역특화품목 육성 교육도 진행될 계획이다. /백두연 기자

완도, 국립난대수목원 기본계획 수립 완료

완도군(군수 신우철)은 국립난대수목원 조성 사업의 기본 계획 용역이 예정보다 4개월여 앞당겨 완료됐다고 밝혔다.

국립난대수목원 조성 사업은 도립수목원으로 운영 중인 국내 최대 난대림 완도수목원 부지(381ha)에 국비 1천475억 원을 투입하는 대형 국책 사업이다.

사업 추진 과정 중 기본 계획은 사업 추진 방침과 콘셉트, 구상, 배치 등 전반적인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는 절차로 사업 성과와 연결되는 중요한 단계이다.

완도군은 국립난대수목원 조성 사업이 군 역점 사업인 해양치유산업과 연계해 지역에 큰 이점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며, 용역 착수 단계부터 세부 사항 등을 신중하게 논의해 산림청에 건의해왔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기본 계획의 완성도를 높였다.

지난 3월 5일 산림청에서 '국립난

대수목원 기본 계획 수립 완료 보고회'가 개최됐다.

기본 계획에는 지구온난화에 대응하는 수목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방문객 공간인 '레이크 가든 센터', '모노레일', 난대 숲과 다도해를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 '트리탑 데크 로드', '전시 온실' 등을 구축해 타 수목원과 차별화를 꾀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산림청과 전남도, 완도군은 곧바로 기본설계에 착수해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용관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전문가 및 지역 관계자들과 조성 방향을 공유해 국립난대수목원이 명품 수목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신우철 군수는 "군이 웰니스 관광 중심지로 도약하는 데 국립난대수목원 조성 사업이 큰 축을 맡고 있는 만큼 사업 추진에 많은 노력을 쏟겠다"라고 밝혔다. /이문수 기자

해남, 15일까지 대형산불 특별대책 추진

해남군은 봄철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가운데 15일까지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한다.

특히 다음주까지 청명과 한식, 국회의원 선거가 이어지며, 야외 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총력 대응체제에 돌입했다.

이를 위해 산불방지대책본부는 비상체제로 전환하고 공무원 기동

단속반을 편성, 현장 중심의 산불예방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또한 일몰 직전이나 비 예보 전 소각행위가 급증함에 따라 산불예방전문진화대 근무시간을 오후 7시까지 전환해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15개조, 55명으로 구성된 산불전문예방진화대는 산불 발생시 초기 진화와 함께 읍면 순회를 통해 등산

로 등 취약지역 산불예방의 순찰과 계도를 집중 실시하고 있다.

특히 산림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산림인접지역 100m 이내에서 소각행위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인 논·밭두렁 태우기, 영농폐기물 등의 소각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감시활동을 강화한다.

불법소각 적발 시 30~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 처벌할 방침이다. /윤보현 기자

고흥군, 사회보장수급자 2024년 상반기 확인조사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사회보장수급자 1천343세대를 대상으로 사회보장 급여 적정성 확인을 위해 4월 1일부터 6월 28일까지 3개월간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확인조사는 상·하반기 2회 실시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13개 복지사업의 수급자와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공공·금융기관으로부터 입수한 소득재산자료를 바탕으로 수급 여부 등을 재판정하게 된다.

조사 결과 자격변동(탈락)자 및 급여변경(감소)자에 대해 사전통지해, 확인조사의 취지 및 탈락 사유를 안내,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하고, 소득재산 변동에 따른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급여별 사업부서에서 환수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최종민 기자

진도, 겨울철 위기가구 보호 '우수 지자체'

진도군이 추운 겨울철 지역의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한 결과 우수 지자체로 선정,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겨울철 위기가구 우수 지자체 선정은 보건복지부가 매년 전국 229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위기가구 발굴지원 실적과 혜택 지원, 민관 협력도, 복지사각 해소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올해는 전국에서 23개의 시군구가 선정됐고 진도군은 우수 지자체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진도군은 ▲위기가구 신고자 포상금 지원사업 ▲발굴보고회 주1회 개최 ▲우리동네 복지기동대와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민관협력력을 통한 선제적 발굴·지원 등을

적극 추진했다. 특히 화재를 입은 피해 가구에 민관 자원을 연계해 지원한 점이 높게 평가 받았다.

또한 민간단체에서는 추운 날씨에 조금이라도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희망키트 30가구, 사랑의 동지팔죽·김장김치 500상자, 어르신 행복도시락 226명, 이불빨래 200가구, 집수리 20가구 등을 전달하고 추진했다. /이재평 기자

한 적 하고 여유롭게 나만의 시간을 갖고 싶은데 어디까지?

집나가면 '가시'이다

자연속의 가족마을 곡성

2018년 곡성군 자연공도면 최정복영상 수상작